

PRUGIO

동어파그애



happy_new_year

@정대우 과장
#2022년 #일출 #새해 #정대우

4 [news](#)

호랑이의 힘찬 기운, 복떡에 담아가세요

8 [CEO message](#)

2022 신년사

10 [with 처음](#)

새로운 시작

듣다_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처음’에게

보다_나를 빛나게 하는 ‘처음’의 순간

읽다_굳건한 초심, 뜨거운 작심에의 제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찬란히 피어나다

18 [DW history](#)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24 [ESG now](#)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현장

26 [the best site](#)

따뜻한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36 [our people](#)

바로배움 스튜디오

40 [DW manual](#)

새해 새 희망을 향해 오르다

42 [we are challenger](#)

작심삼일 막는 특별한 운동법

48 [healthy life](#)

일상공감툰_호랑이의 해

50 [cartoon](#)

온라인에서 만나는 대우이야기

52 [DW media](#)

새해를 맞이하는 대우인의 자세

54 [letter from SNS](#)

2021 11 + 12 이벤트 당선작

55 [post box](#)

2021 11 + 12 독자의견

+ [event](#)

엽서_틀린그림찾기 이벤트

포효하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 복^福떡에 담아 가세요!



대우건설 새해 첫 출근 현장

차가운 바람과 파란 하늘, 맑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임인년(壬寅年)의 기상처럼 신년 첫 출근을 하는 임직원의 발걸음도 기운차 보인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사 로비에 복(福)떡을 가득 마련함으로써 임인년 새해를 맞을 채비를 마쳤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속속들이 도착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환하게 빛난다.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은 복(福)떡을 손에 쥐고 서로 눈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신년 한파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탓에 악수를 나누며 표정을 마주하지는 못해도, 마스크 속으로 환한 웃는 미소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누구나 신년을 맞을 때마다 매년 결심하게 되는 한해의 다짐들, 올해는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을 담아 멋지게 이뤄내길 기원해본다.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은 복(福)떡은 어린이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녹여내기에 충분했다.

본사 로비에서 새해 첫 출근길, 떡을 받아든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1+2 DAEWOO E&C NEWS



불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수주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불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9-3번지 일대에 위치한 불광1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GTX-A노선이 정착할 연신내역과도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데다 풍부한 녹지 공간과 교육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어 사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수주에 성공한 회사는 앞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527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흑석11구역, 노량진 5구역, 파주1-3구역, 경남 창원 신월3구역, 과천 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은 물론이고, 리모델링 진출에도 성공하며 도시정비사업 누적 주택 3조 8,992억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친환경 에너지 나눔 ‘라이팅 칠드런’ 진행

회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열흘에 걸쳐, 에너지 빈곤국 아이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전달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 170가족의 참여로 완성된 태양광 랜턴 313세트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은 등유 램프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은화삼지구 A1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12월 23일, 회사는 ‘은화삼지구 A1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126-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총 1,6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본격 추진

지난 12월 10일, 회사는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시공 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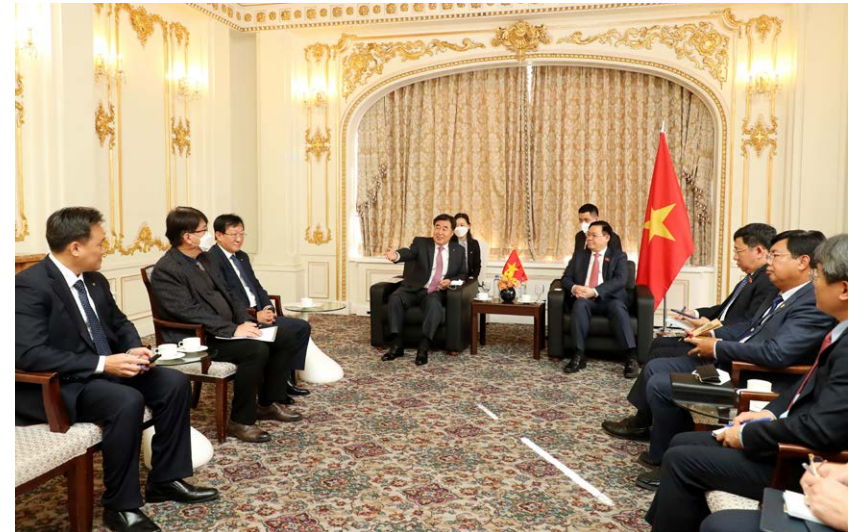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건설공사 수주

지난 12월, 회사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1, 3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1공구는 둔촌동과 명일동 일대의 총 연장 1.35KM, 3공구는 고덕동 일대의 총연장 1.49KM로 각 공구마다 철도터널과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외임직원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행

지난 12월 7일, 회사는 강북삼성병원과 ‘해외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해외 19개 국가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600여 명이 국내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의료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지난 12월 13일, 회사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 대외협력국과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재투자 협력 및 하이즈영성과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이번 협약을 위해 다음날인 14일, 하이즈영성 당서기장이 회사를 방문해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壬寅年

2022 신년사

“올해 우리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대주주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또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대우건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우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정과 진취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작년 우리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약 28,000세대 주택 공급을 통해 동종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도시 정비사업에서는 3조 클럽에 진입하며, 주택사업 강자의 자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투자 지연의 직격탄을 맞은 해외에서도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며 Global Top Tier 건설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영월 에코윈드 풍력발전 공사를 수주하고, 영광낙월 및 굴업도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를 확장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지속해온 체계적 리스크 관리, 입찰 및 수행 역량 고도화, 양질의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우리 대우건설은 창사이래 최대 영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값진 성과를 이뤄내며, 한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 안전 관련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에서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인한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게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위한 변화에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우건설의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안전혁신 선포식을 통해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다섯 가지 실천사항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우건설은 중대 재해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이자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를 개선하거나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 대우건설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뿌리내려 더 이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창출해 내며 그동안 시장의 우려를 일부 해소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격변의 소용돌이 안에서는 꾸준한 상승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수행해온 전략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 추진 정책을 엄격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변혁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마케팅, 입찰,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발전시켜 온 각종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방대한 데이터는 앞으로 대우건설 지속가능성장의 자양분이 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경쟁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강화입니다.

자동화, 디지털화, 탈현장화를 바탕으로 한 건설 기술 혁신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새로운 건설 사업까지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안전관제, BIM, Big Data, 모듈화 등 스마트 건설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관련 사업 선점을 통해 제2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린 에너지, 탄소 제로화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친환경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지속가능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속해 온 Value Chain 확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발굴, 리츠자산관리 회사를 활용한 투자 개발 사업, Start-up 투자 프로그램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은 100% 빚나가는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과거의 실패 경험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ESG경영의 실천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수익 창출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비재무적 성과까지 모두 달성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여 신뢰받는 대우건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대주주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영속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또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간, 본부간 벽을 허물어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대우건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One-Team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우건설이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올 한해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대우건설
사장 김 형·정항기

새로운 시작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 신영복 시인 '처음처럼'

세상 모든 것에서 만나는 '처음'.
올해, 당신의 모든 처음이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with

처음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처음’에게

누구에게나 ‘처음’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처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들의 아주 특별한 처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김승민 과장
#덕은리버워커험장

손바닥만큼 작게 태어난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 1kg도 채 안 되게 태어나 숨소리조차 안타까웠던 아이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3년간 희귀병과 싸우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3년 내내 먹던 약을 끊었던 첫날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온 아이와의 매일매일은 지금도 매 순간 처음처럼 설레이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김찬유 사원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현장

우리회사에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첫 월급이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에 베풀어서 불과 2주 만에 0원이 되었던 기억^^.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풍족하고 즐거웠던 처음의 기억이라 아직도 제게 생생히 남아있네요.



#이승희 차장
#발전견적팀

처음 현장에 배치되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따라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고 현장펜스도, 콘테이너도, 사무실도 없는 그저 광광 얼어있는 나대지였죠. 공사총괄 부장님과 하나씩 만들어 갔던 그 현장이 어느덧 입주를 하게 되었네요. 그때의 성취감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송재구 대리
#매교역푸르지오SK VIEW현장

제 인생에서의 첫 해외여행이 생각납니다. 2017년도 제 나이 33살이 되어서야 현장 직원들과 여름휴가에 맞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죠. 아침 7시까지 인천공항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는데, 들뜬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부터 출발해서 공항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김준태 대리
#평택미군독신숙소현장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으로 입사했던, 내 생애 첫 대기업인 우리회사 대우건설. 두려움이 가장 컸지만 친절han 동료들과 체계적인 회사 시스템이 있어 ‘회사다움이란 이런 거구나’하는 느낌을 제 생애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회사입니다. 여러 회사를 경험해본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처음이 아닐 수 없네요.



#박소정 사원
#광명푸르지오포레나현장

열 다섯 살 중학생이었던 저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처음 고백을 했더랬죠.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던지라 학교 마치고 시험기간엔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은 학원 다니며 옆자리에 앉아서 쑥쓰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네요. 참 순수했던 그 시절의 우리가 그립습니다. ○○아~ 지금도 잘 지내지?^^



#이대우 부장
#토목견적팀

성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던 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당장 실컷 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일탈의 마음으로 찾아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친구들과 처음으로 마셔 본 막걸리 덕에 천국과 지옥을 일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연현 차장
#총무팀

첫 월급으로 만들었던 적금통장에 찍힌 숫자와, 처음으로 만든 새 통장의 질감이 저를 참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좋았는지 해지된 통장들을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 아직까지 수북이 모아두고 있죠. 내 인생의 행복한 마라톤의 시작을 알리는 첫 스타트의 느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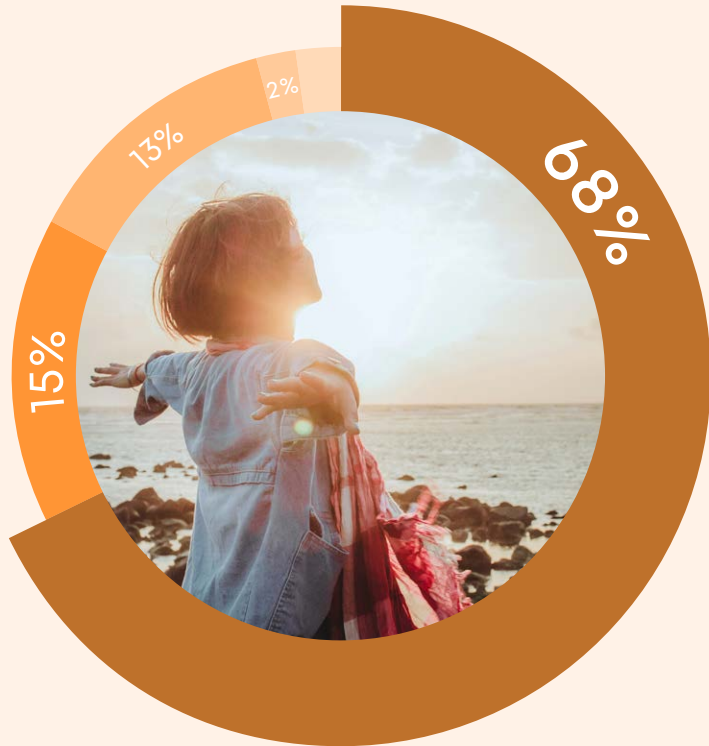


나를 빛나게 하는 ‘처음’의 순간

세상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기에 세상은 온통 아름다울 수 있고, 처음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대우건설인들의 ‘처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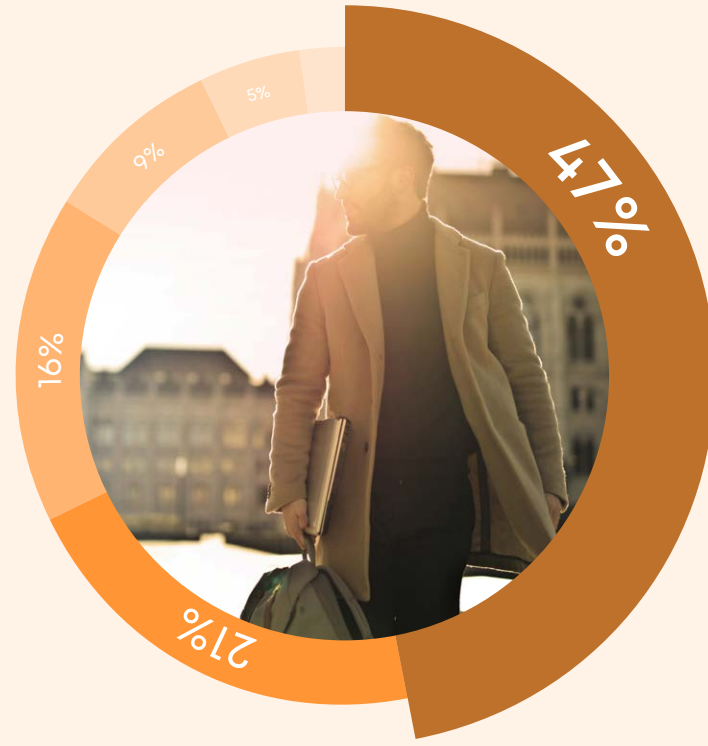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느낌은?



-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설렘과 기대감 68%
- 몸과 마음이 바짝 조여지는 긴장감 15%
- 막연한 것에 대한 왤지 모를 부담감 13%
-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 2%
- Other 2%

2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처음의 순간은?



-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던 그날 47%
- 오랜 진통끝에 첫 아이를 낳았던 그 순간 21%
- 내 청춘의 시작! 대학교에 첫 입학한 날(혹은 내 아이의 첫 입학식) 16%
- 오랜 연애를 끝내고 드디어 결혼하던 날 9%
- 고생끝 행복시작! 처음으로 마련한 내집에 들어가던 날 5%
- Other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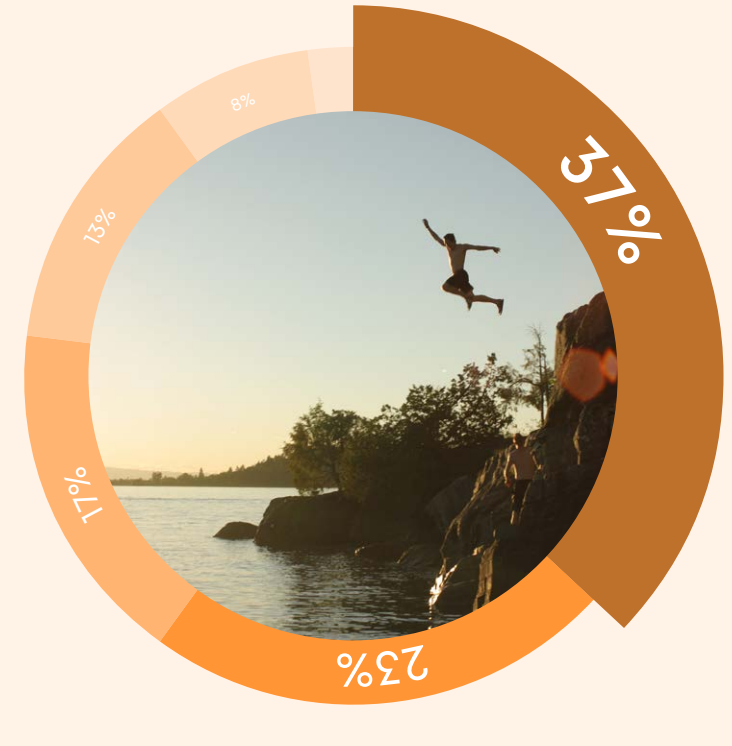
첫 월급으로 무엇을 했나요?



- 첫월급은 가족에게! 가족들에게 선물 돌리기 71%
- 재테크의 기본은 월급! 은행가서 첫 적금 가입하기 13%
- 오늘은 내가 쓴다! 친구들 불러서 한턱 쏘기 8%
- 날 위한 선물! 평소 찜해뒀던 물건 폭풍 쇼핑 5%
- 나누는 기쁨!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2%
- Other 1%

4

올해 내가 만들고 싶은 ‘처음’은?



- 새로운 취미, 배움에 대한 첫 도전 37%
- 오랫동안 계획해두고 있던 자격증 도전 23%
-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의 첫 여행 17%
- 인생 2막을 위한 첫 걸음, 결혼 혹은 첫아이 출산 13%
- 내손으로 장만한 처음 내 집 마련 8%
- Other 2%

굳건한 초심初心

뜨거운 작심作心에의 제안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며칠은 계획대로

실천하지만 얼마 못가 계획은 그만 유야무야되고 만다.

신입사원 시절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초심도 마찬가지로,

연차가 올라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매너리즘과 슬럼프에 빠지게 되기

심상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인류 최대의 난제인 것만 같은

‘작심삼일’은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글/ 누다심 - 심리학 칼럼니스트
‘누다심’(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과 심리상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이자 삶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재직 중이다.



실패로 돌아가는 두 가지 이유

‘작심삼일 作心三日’이란 말은 의지력이 약해서 어떤 일을 계획해도

삼일 밖에 못 가고 그만둔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의지력이 강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가 무슨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처럼 초능력자도 아닌데 의지력만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의지력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성공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감량하겠다는 계획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9kg까지 체중이 줄었다면 성공인가?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패라고 말한다. 만약 10kg 감량에 성공했다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식의 새해 소망이 성공했다고 확실하게 결론 내리려면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는 소망이 ‘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체중감량처럼 평소 하기 싫어하던 것을 실천하거나, 금연같은 나쁜 습관과 행동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물론 못하는 것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사람은 본래 못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법이다. 즉 싫은 것을 선택했으나, 싫기 때문에 안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준비

그렇다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를 뒤집으면 된다.

첫째 ‘현실적으로’ 소망을 세우자.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높게 잡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공한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말한다. 목표를 낮게 세워서 성취감을 맛보라고 말이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일단 성취한 다음에 목표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 어느새 상당한 지점에 도달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이라면 처음부터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자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익혀 나가보자. 만약 새해부터 체중감량이 목표라면 일단 1kg 감량을 목표로 잡고, 그 다음 일주일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잡자. 이것이 성공하면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둘째 ‘긍정’에서 출발하는 소망을 세우자. 금연이나 체중 감량에 자주 실패하는 사람은 이런 목록을 아예 새해 소망에서 지워버리자. 어차피 시도해도 실패만 한다면 차라리 잠시 밀쳐두는 편이 낫다. 계속 시도해봐야 좌절감만 맛볼 테니 말이다. 대신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 주변에서 나를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숨겨진 재능이나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시켜 보자. 부정을 없애려는 대신 긍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계획의 실천과 성취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올해 꼭 필요한 새해 계획이 바로 당신 삶의 행복이 되길 바라며….

S I N C E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찬란히 피어나다

1 9 7 3

DW history는 50주년을 앞두고 대우건설의 지나온 발자취를 만나보는 연중 칼럼입니다.
다음 호는 해외시장의 건설과 발전의 역사(1982-1989)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함께 하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정책을 펴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1967년, 김우중 회장이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한 대우실업주식회사. 서울 중구 명동에 있던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 움트기 시작한 대우의 역사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설회사로 찬란하게 피어나게 되었다.

1973년 8월, 대우건설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이후 11월 1일 초창기 멤버 12명을 구성,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대우는 이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최초의 계열사인 대우개발을 설립, 관광사업과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창립 초기, 임직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공사 수주에 힘을 쏟은 결과 각종 국내 시설 공사를 수주,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우센터 준공 및 국내건설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게 된다.

1977년 대우그룹의 총본산인 대우센터 1977 건설 및 힐튼호텔 1983, 롯데호텔 1979, 광화문 교보 사옥 1981 등 서울시내 고층빌딩 건설, 당시로는 최대 금액이었던 최초 정부 발주공사인 대전공작장 1984 건설공사 등으로 대우건설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도로와 지하철, 화물기지, 조선소, 교량 등 각종 토목사업으로 국토개발까지 참여하게 된 대우건설은 국가의 발전에 든든하게 이바지하는 국내 초일류 건설사로 거듭나게 된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해외진출 역시 성공하였는데 에콰도르 Ecuador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수단 Sudan, 중동 Middle East, 아프리카 Africa, 런던 London까지 세계 곳곳에 대우의 기술력을 세워나가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지속적 개발로 고도의 성장을 이룬 대우의 탄생과 성장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성장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며 지금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역사의 순간을 써나가고 있다.

서울과 대우그룹을 상징하는 역사 대우센터 건립

대우가족의 총본산이자 꿈이 담긴 요람의 상징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앞에 우뚝 서 있는 우람하고 웅장한 모습의 대우센터는 수도 서울과 대우그룹을 상징하던 대우가족의 총본산이었다. 이곳은 대우그룹이 성장하게 된 초석이며 원동력이었고, 대우인들의 꿈이 담긴 요람이며 심장이자 싱크 탱크(think thank)로 자리잡아왔다.

1968년 3월, 정부가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대우센터 건립의 역사는, 대우개발이 1973년 교통센터를 전격 매입하고 1974년 재설계에 착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우개발은 대우센터를 건설하면서부터 공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조직을 정비해나갔다. 당시에 입사했던 유능한 이력들은 훗날 발전소와 해외공사를 훌륭히 완수해내는 주춧돌이 되었고, 오늘의 대우건설을 이끌어가는 경영진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짓지 못한다면 아무도 지을 수 없다

1975년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건설공사를 시작한 대우개발은 공사초기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용용도 및 구조상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 있었지만 대우센터 건설팀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 보완해 나갔다. 시공능력에 대한 주위의 우려도 컸지만, '우리가 짓지 못한다면 아무도 지을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도전해 나갔고, 결국 이 거대한 건설공사를 최단시일에 이루어내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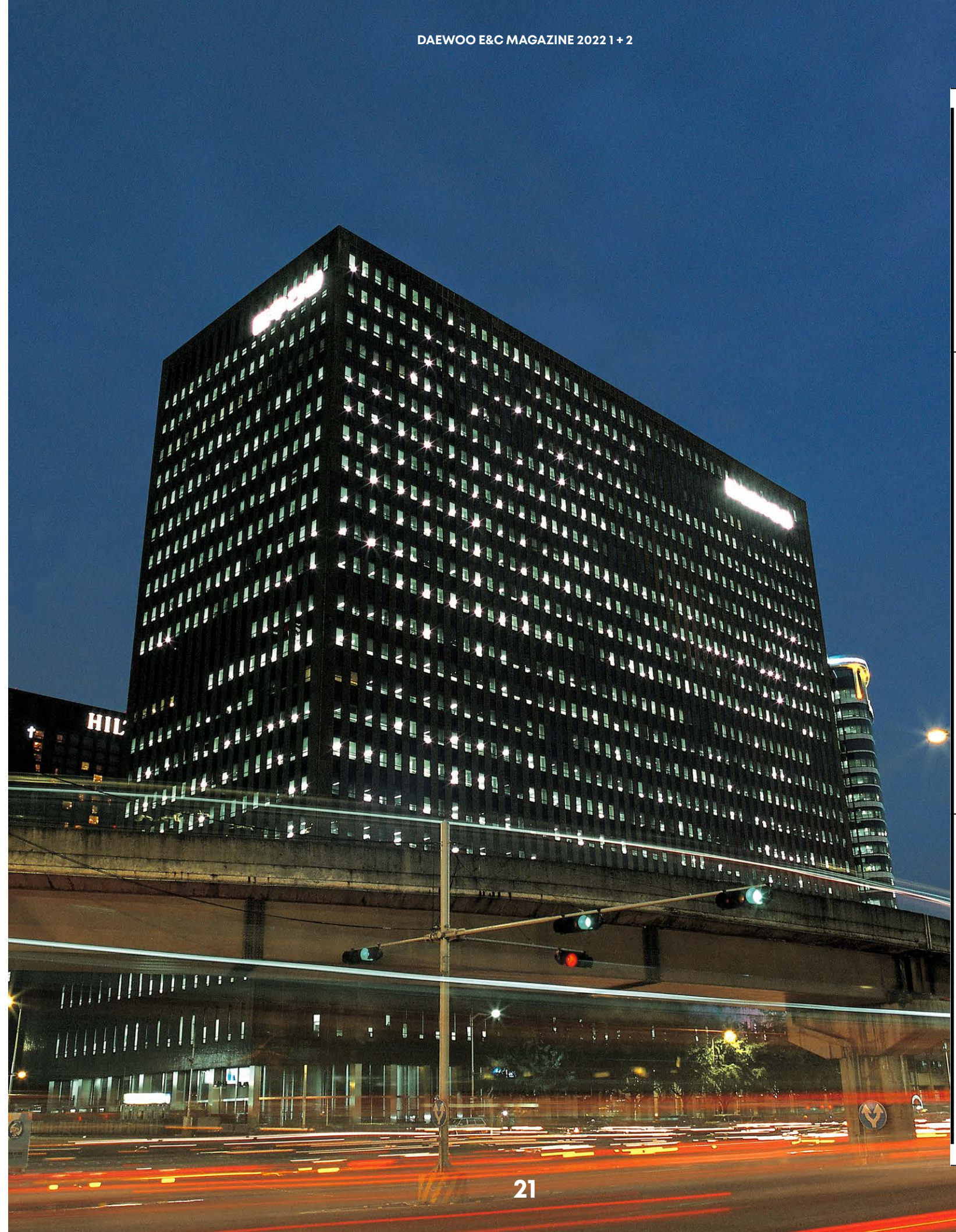
대우의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표본으로 남다

모두가 피땀을 흘린 각고의 노력 끝에 대우센터는 착공 28개월만인 1977년 6월 12일 준공되었다. 총 공사비는 200억원이었다. 초현대적인 설비를 고루 갖춘 대우센터는 1990년대 들어 첨단화된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여러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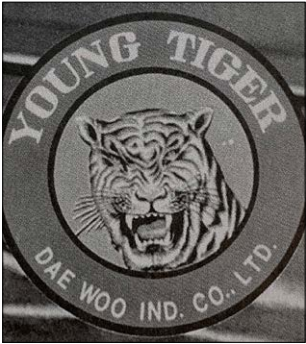
첫째, 한 층이 약 1,200평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사무실에 기둥이 전혀 없다는 것, 둘째, 전층에 설치된 최신형 화재감시기와 경보설비, 작동이 정확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셋째, 건물 높이가 130m나 되었는데 수직교통으로는 국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영했다는 것, 넷째,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것, 다섯째, 철도, 전철, 버스 등의 연계가 편리한 교통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여섯째, 건물 앞 넓은 공간과 7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8,000평의 주차빌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록을 보유했던 대우센터의 건립은 대우개발의 건설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수도 서울의 명물이자 대우가족의 요람인 대우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대우의 자랑스러운 기술을 널리 알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74년 5월 13일,
대우센터의 용도가 모두 확정되고
건설준비가 다 끝난 것 같다.
지난 4월부터 시공계획과 외부설계를
연구해왔으나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
이 건물이 나의 마지막 설계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홍성부 상무의 일기 중



대우건설의
탄생과 성장



대우 초창기의 심벌마크

대우건설의 설립등기

7월 영세건설업체이던 영진토건사의 영업권
인수, 한달 만인 8월 1일, 대우건설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때부터
대우건설의 역사는 움트기 시작했다.

대우개발 설립 및 합병

대우개발 설립, 이후 교통센터 인수와 함께
대우건설과 합병, 대우개발로 상호를
변경했고 이러한 변화를 거치는 동안
대우개발은 건설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서며
성장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대우건설의 태동

1973년 8월 1일 등기 이후, 홍성부 이사(홍광)를
중심으로 대우건설 초창기 멤버 12명이
구성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날이 대우건설의 실질적인
창립기념일이 되었다.

대우그룹의 상징인 대우센터 빌딩 준공

국내건설부문에 적극 진출한 계기가 된
대우센터 빌딩을 준공했다. 대우센터 건립은
대우개발의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이자 대우의 역사적 표본이 되었다.

울산화력발전소 기공식 거행

1977년 12월 16일 울산화력발전소의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는 대우건설이 플랜트 사업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성장의 동인이 되었다.



대우센터 건립



대전공착장 내부

대전 공착장 건설공사 수주

정부에서 발주한 최초의 턴키베이스 공사이자,
당시 공사금액 623억원으로 최대금액이었던
대전공착장 건설공사 수주는, 대우개발이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73

1977

1979

1967

대우실업주식회사 설립

김우중 회장이 1967년 3월 22일 자본금
500만원으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동남도서빌딩 401호에서 문을 연 대우는
당시 트리코트 직물 수출로 업무를 개시했다.

대우실업 최초의 사옥



1976

대우개발의 성장 기반 마련

전기통신 설비공사업 면허 및 해외건설업
면허,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종합건설업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전년대비 192%의 영업신장을
이룩했다.

목포진입도로공사 착공

대우개발이 최초로 수주한 토목사업인
목포진입도로공사가 6월 1일 착공됐다.
대우개발은 이 공사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도로공사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예과도를 통해 해외 첫 진출

대우개발의 첫 해외진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예과도로 공사. 국내 최초로
남미에 진출했으며 이후 대우개발의
시장개척의 척도로 작용,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 개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첫 해외수주 예과도로



국내 최초의 복합교량인 동작대교



1978

최초의 도로 및 철도겸용 교량, 동작대교 착공

10월 19일 동작대교 착공, 우리나라 최초의
랭거식 아치교인 동작대교를 설계에서
시공까지 순수 대우의 기술로 건설함으로써
기술축적을 통해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공사 참여

4월 강남역 지하상가 수주를 시작으로
1979년 3월 총연장 1.2km의 지하철 2-3공구
공사까지 수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후
연속적인 지하철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시장의 새로운 광맥, 리비아 개척

6월 리비아 가리우니스 외대 신축공사를
계기로 리비아에 첫 진출한 대우개발은 이후
우조비행장, 즐리텐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을
통해 리비아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한국과
리비아 간의 우호증진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1981

해외시장 개척의 전초기지, 런던지사 설립

2월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 및 국내 공사현장의
자재구매 통합관리 임무를 완수, 회사경영에
큰 기여를 한 해외지사로 기록되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성 강화로 대비하는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및 지침 마련을 통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중 부실시공 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강화된 조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강화이다. 더욱 강화된 규제 속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전영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미글로벌(주) 과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건설산업 정책 및 공사비, 하도급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개정된 부실벌점제도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舊(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6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벌점산정, 벌점 경감제도, 불이익 적용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하여 강화되는 규제 일반도의 개정을 해왔고,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객관성, 운용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제도의 문제를 일부 보완하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목적을 넘어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규제의 역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의 우려를 넘어 심각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벌점 부과 방식이 이른바 ‘평균벌점’ 방식(특정 기업이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을 점검 대상이 된 현장의 수로 나뉜 평균벌점을 산정한 뒤,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에서 ‘합산벌점’ 방식(특정 기업이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인 반기벌점으로 산정한 뒤,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無(무)사망사고’, ‘현장관리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 벌점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소폭 도입되었으며,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다소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부과 항목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기존 117개에서 131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중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운영 현장 수가 많은 대형기업일수록 벌점을 더 받게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는 명백히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대부분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대형기업에게만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에 따라 선분양 제한과 주택도시시기금 출자 또는 용자 제한 확산이 불가피해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에 대한 이해와 불필요한 피해 예방 필요

이렇게 강화된 부실벌점제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이번에 신설된 벌점 경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역량 집중이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벌점 부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경우 벌점을 부과받더라도 부과 벌점이 많지 않으면 굳이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점 부과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나 해당 공정이 완료되지 않아 보완이 가능함에도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 조기 재시공과 더불어 이에 대한 벌점 부과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 다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자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공동도급 비율만큼 벌점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따른 벌점 부과 회피를 위한 관련 서류의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사부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실벌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에게도 부과된다는 점과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인의 이직 시에는 그 벌점이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 전 이에 관한 확인 절차의 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합리적인 재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기업의 경우는 현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best site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현장

‘기존의 푸르지오가 자연이었다면, 미래의 푸르지오는 자연스러울 것이다.’
자연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내세우며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을 리뉴얼한지 어언 2년.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Natural Nobility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에서 말이다.

UNJEONG PARK PRUGIO

규모

지하 2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 동·710세대

공사기간

32개월
2018.4.12.~2021.12.15.

면적

연 108,554m²
대지 41,435m²



운정신도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2기 신도시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현재 3지구 사업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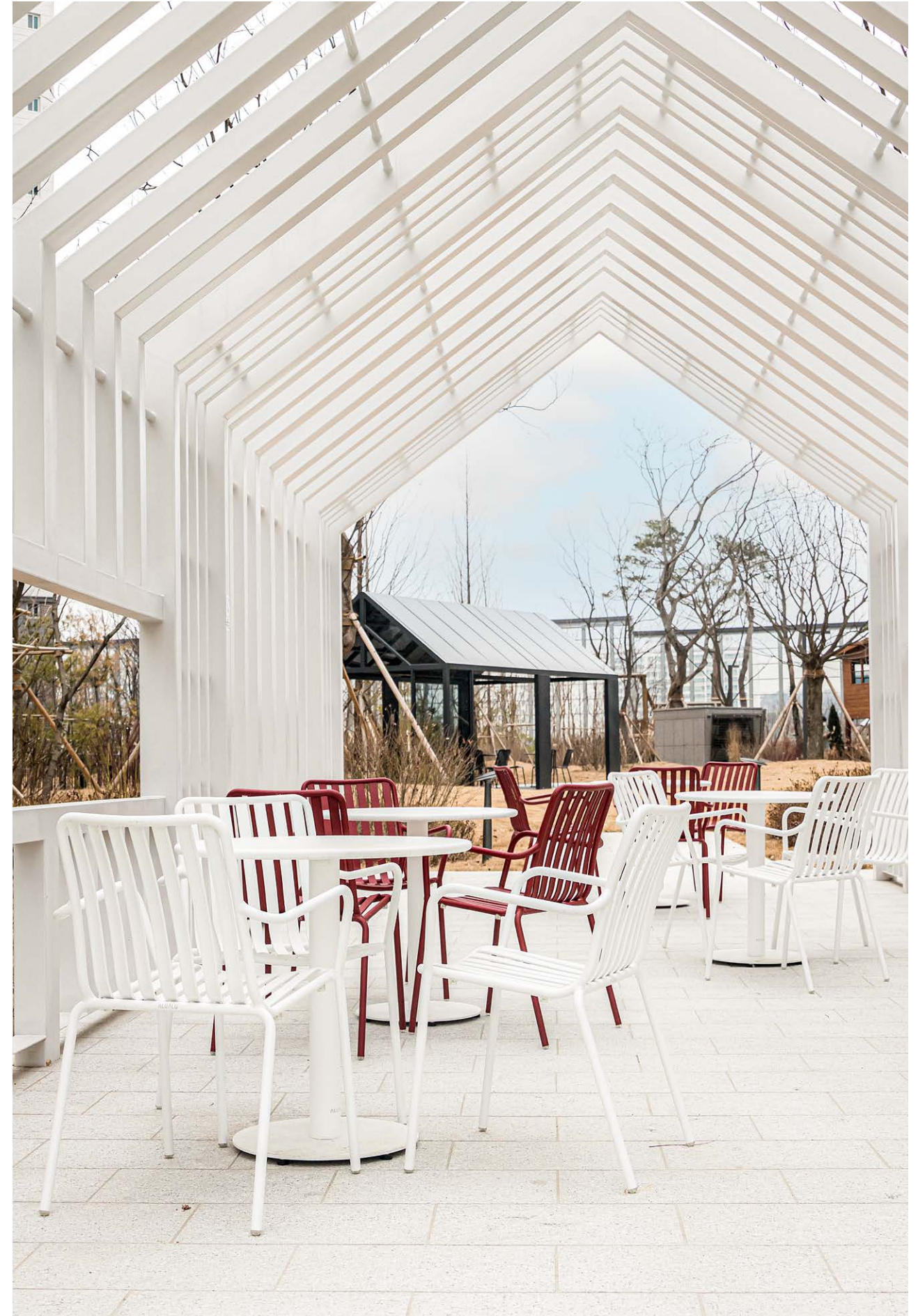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규모에 총 7개동의
아파트 710세대로 건설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브랜드 리뉴얼 설계를 반영한 최초의 단지다.



푸르지오가 끊임없이 삶의
질을 고민하고, 단지의 시설과
조경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깨달은 임주민이 푸르지오에서
누리는 모든 일상에 있어
어떠한 불편함이나 조금의
수고스러움없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단지 안에서 고급스러운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공간을 시공해냈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나에게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란?

- #내 고향 파주에서 내 발로 댄 애착 현장 @문경호 대리
- #짧은 만남, 좋은 인연 @김정호 부장
-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었던 성장의 발판 @이동철 대리
- #나의 첫 현장, 누구한테나 자랑할 수 있는 현장 @김남두 사원
-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디딤판 @이 호 사원
- #좋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현장 @정채영 사원
-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현장, 가장 애착 가는 현장 @박사무엘 차장
- #즐거움 @이승현 차장
-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은 현장 @이상필 차장
- #첫 만남 = 설렘 @김진우 과장
- #다저온 노하우를 잘 녹여낸 현장 @김학현 부장
-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파트 @황지원 사원
- #피 땀 눈물~ @김형근 과장
- #나의 30대 초반을 회상하게 될 아파트 @강동구 대리

브랜드 리뉴얼 설계를 반영한 최초 단지

운정신도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2기 신도시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현재 3지구 사업이 한창이다. 회사는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에 이은 야심작,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시공하고, 최근 ‘운정 푸르지오 파르세나’를 분양하며 운정신도시에 초대형 브랜드 타운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중,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규모에 총 7개동의 아파트 710세대로 건설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브랜드 리뉴얼 설계를 반영한 최초의 단지로 입주민의 관심은 물론, 직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현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슈에 GTX-A노선(운정역 예정), 수도권 제2순환도로, 지하철 3호선(연장 예정)에 인접한 쾌속 교통망과 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더해져 운정신도시를 빛낼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저희 현장은 푸르지오 리뉴얼 설계를 최초 적용한 단지입니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설계와 4bay 판상형 구조를 구현하여 우수한 채광과 뛰어난 공간 활용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푸르지오의 새로운 조경 철학을 담아 입주민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장준석 소장의 설명이다. 이렇듯 모두의 기대 속에 완성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다른 단지와 다른 이색 풍경이 하나 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이다. 보통 이 시기에는 ‘입주를 축하합니다’라는 환영 문구가 일반적이지만, ‘운정 최고의 아파트’, ‘감사합니다’ 등의 감사 문구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현장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부착한 것으로, 지난 32개월 동안 직원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진정성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설계 선보여

푸르지오가 끊임없이 삶의 질을 고민하고, 단지의 시설과 조경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까닭은 입주민이 푸르지오에서 누리는 모든 일상에 있어 어떠한 불편함이나 조금의 수고스러움없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을 담은 푸르지오 브랜드 리뉴얼 설계의 실사판인 이번 현장은 프리미엄 설계를 통해 그 빛을 발했다.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완벽한 공간 설계가 그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4bay-3Room 신평면을 들 수 있다. 신평면은 공간 활용과 그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는데, 일부 타입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알파룸, 팬트리 제공을 통한 수납공간 강화, 안방 광복 설계를 적용한 공간 활용으로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부각시켰다. 여기에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여 집 안에 바람과 햇살을 그대로 들어오는 데 성공하며 신평면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했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에서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여기에 친환경의 개념을 더해 똑똑하면서도 알뜰하고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발의 움직임으로 물을 틀고 끌 수 있는 절수기 일체형 싱크 수전, IoT 스마트 스위치로 온도와 조명, 대기전력까지 차단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LED조명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를 구현해냈다.

업그레이드한 조경시설로 새로움을 더하다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현장에서 만들어 낸 ‘The Natural Nobility’는 세대 밖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21년 업그레이드한 조경 전략 또한 현장에 최초로 적용하여 단지 조경에도 새로움을 더했다. ‘리뉴얼 상품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조경 담당 김동준 차장은 단지 안에서 고급스러운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공간을 시공해냈다. 덕분에 현장에는 눈에 띄는 조경 시설이 손에 꼽고도 남을 정도다.

먼저, 이번 현장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액션그라운드다. 농구, 배드민턴, 풋살, 축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코트를 중심으로 탁구대와 러닝 트랙이 갖춰진 체육시설로써 확 트인 넓은 공간이 특징이다. 액션그라운드에서 숲속 놀이터와 휴게소로 연결되는 동선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의 면모를 자랑한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수영장시설이다. 중앙광장의 놀이터-썬큰가든-잔디마당으로 이어지는 약 100m 길이의 계류를 따라 걷다 보면 2개의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고품격 아파트의 대명사로 여겨왔던 석가산의 현대식 해석으로 ‘돌과 물의 풍경’이라는 정원이다. 돌과 물의 풍경의 모던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계류의 선형은 모던하게 유지하는 한편, 주변의 조경시설과의 조화도 고려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직원들이 애착해 마지않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경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토끼놀이터, 원형 파고라로 이어지는 가족 휴게 공간이다. 리뉴얼된 조경의 최대 쟁점은 푸르지오에서의 경험의 변화였는데, 부모의 휴식과 아이의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경험의 변화를 꾀하며 현장의 سن스틸러로 자리하고 있다.

앞서나가는 기술로 명작을 탄생시킨 모범현장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단지 곳곳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녹아져 있는데, 이러한 수식어에 걸맞게 현장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최초’를 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많은 현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현장은 ‘복합센서를 활용한 현장 미세먼지 및 온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또 한 발 앞서나갔다. 현장의 김형근 과장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이 시스템은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이번 현장에 최초 적용되었다. ‘복합센서를 활용한 현장 미세먼지 및 온열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종 센서와 IoT무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을 실현하고 미세먼지, 온열질환 정보 공유 및 법규 대응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계이트에 미세분무 살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현장 내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며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온도, 습도 등의 날씨 계기판을 설치해 작업자들에게 날씨 정보를 자동전파하는 등 클린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일반 작업자와 민감근 작업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까지 실현하는 모범현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32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흘린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더욱 새로운 푸르지오 프리미엄의 실체를 세상에 공개하며 또 하나의 명작을 탄생시킨 순간이다. 새로움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삶의 가치를 경험하며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길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가 더욱 빛나길 바라본다.



장준석 소장

최고의 품질로 하자 발생 제로를 위해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며 모든 것을 새롭게 담아낸 현장입니다. 준공인가를 받던 날, 입주자에정협의회에서 전달해주신 감사패에 전 직원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는 물론, 직원들과 끝까지 우호적으로 소통해주신 입주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열정, 따뜻한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2021년은 대우건설 21사번들에게 뜻깊었던 한 해였다.
첫 입사,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간절했다.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패기로 힘차게 첫발을 내딛었던 그들의 지난 반년,
그 시간들을 딛고 올 한해 더욱 성장해나갈 그들의 새해 다짐과 각오는 어떤 의미일지.
그들의 반갑고도 거칠 것 없는 수다의 현장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송철한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현장

지 환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현장

박지연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현장

김유승
평촌엘프라우드현장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대우건설 21사원들의
반가운 수다와 새해 각오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1. 입사동기!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들

@지 환 와, 다들 이게 얼마만이야. 신입사원 연수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맞지?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김유승 다들 잘 지냈지? 난 그동안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어. 회사 다닐수록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이 절실히 들더라고. 토목 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 토목기사나 안전기사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행히 윗분들이 부모님보다도 더 공부하란 말을 많이 해주셔서 든든한 기분으로 열심히 준비 중이야.

@송철한 오~ 멋진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과 체력이 된다는 게 부럽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실감 중이야.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자기 바쁘니....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새해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몸도 가꾸면서 체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박지연 몸 만드는 것도 바쁘고 힘든 직장인에겐 너무 중요하지. 난 밥먹듯이 항상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인데, 올해는 맘 독하게 먹어서 진짜 꼭 성공했음 좋겠다!

#2. 으쌰으쌰! 끈끈한 동료애가 넘치는 회사

@김유승 난 우리 회사 다닌지 반년밖에 안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느꼈어. 편안하고 친밀감있는 분위기에서 서로 으쌰으쌰하며 배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매력적인 것 같고. 나는 현장에서 업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먼저 어필하고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설게 전공이라 내가 설계했던 걸 보여드리면서 나의 강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업무 배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박지연 맞아. 나도 처음엔 건설회사라서 자칫 딱딱하고 수직적이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지 환 사원

가족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하긴 하는데, 가끔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곤 해. 신입이라 모르는 거 투성인데, 다들 너무 친절히 잘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하더라. 덕분에 6개월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송철한 나도 일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어. 다들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 속에서 '아, 우리 회사가 상당히 인간적인 기업구나'하는 생각을 했지. 백신 후유증으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PFM님께서 죽을 숙소로 직접 배달해 주셨거든? 그때 죽을 받아들면서 울컥했던 감정은 아직도 못 잊겠어. 타지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아프다 보니 너무 서러웠는데, 따뜻한 죽을 직접 갖다주시니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면서 왠지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

@지 환 나도 빨리 적응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박지연 사원

그래서 잘 몰라도 항상 따라 다니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 많이 했지. 사실 질문이 귀찮았을 법한데도 매번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힘든 거 없냐 먼저 물어봐주고 챙겨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번에 어느 여름날에는 철근 검측을 할 때 얇은 바지가 찢어진 거야. 퇴근 후 바로 저녁 약속이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너털너털해진 바지를 입고 갔는데, 찢어진 바지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건설인이 되어 가는구나' 싶은 생각에 웃음이 나더라, 하하.

#3. 파이팅! 고군분투할 우리의 희망을 위하여

@박지연 난 지금 우리 현장의 준공이 얼마 안 남았거든. 남은 기간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나갔음 좋겠어. 다음에 또 어느 현장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 현장에 꼭 데려오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디서든 인간미를 풍기는 사람이고픈 마음도 있고. 저번엔 자주 보는 현장 근로자분들이 이제 제법

친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과일을 사서 한 봉지 갖다주셨는데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기더라고. 항상 밖에서 일하니까 거친 바람과 힘든 업무에 맞서는 이들이지만, 그 와중에 마음 따뜻하게 하는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사원으로 남았으면 해.

@김유승 나는 좀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대체불가능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우리 현장에 신입사원들이 좀 많아서 윗분들이 더 힘드신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빨리 업무를 배워서 우리 현장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드네.

@송철한 나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룹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해서 적응을 위한 노력은 따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맡겨왔거든. 너무 건방진가? 하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내 자신을



김유승 사원



송철한 사원

믿으면서 주도적으로 업무 능력을 키우는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되고 싶어. '송철한'하면 아이디어 넘치는 별난 사람,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사람으로 회사에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느꼈던 인간미와 끈끈한 정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정이 넘치는 직원이고 싶어.

@지 환 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저 친구한테 맡기면 일 하나는 목소리 나게 해'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음 편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참, 우리가 입사한 이래로 회사에서 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났는데, 올해도 무재해로 안전하게 한 해가 지나갔음 좋겠다. 올해도 안전한 대우건설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할 우리의 희망을 위하여 파이팅!



대우인이라면 언제든 OK!

최신장비 갖춘 고품질 촬영스튜디오 ‘바로배움 스튜디오’

회사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언제, 어디에, 도대체 왜. 궁금증이 한가득 쏟아진다면
스튜디오에 관한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스튜디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이번에 공개되는 업계 최초 영상 전문 스튜디오의
정식 명칭은 ‘바로배움 스튜디오’다.

Q. 바로배움 스튜디오의 개관 목적이 궁금하다.

A.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임직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스튜디오를
개관함으로써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물론, 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Q. 바로배움 스튜디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A. 스튜디오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총 80㎡의 규모에
2개의 스튜디오와 1개의 진행실로 구성되어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영상 촬영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진행실에서는 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과 강의 준비 등이
이루어진다.

Q. 스튜디오 내에 촬영을 위한 장비도 갖춰진 상태인가?

A. 현재 4K급 동영상 촬영 장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영상 송출과
인코딩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2대, 85인치와 65인치의
전자칠판과 프롬퓨터, 촬영을 위한 조명과 무선 핀 마이크 등이
구비된 상태다.

Q. 스튜디오 개관을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A. 방음시설과 추가 냉난방시설을 갖춘 영상 전용 스튜디오는
업계 최초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장비 간의 시스템 호환에 중점을 두었다.
쾌적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음과 전용 냉난방 설비도
갖추었다.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체계적으로 갖춘 것은
건설사에서는 유일한 시설로 알고 있다.

Q. 스튜디오 개관 이후 진행된 교육이 있다면?

A. 신규입사자 기초교육, 계층별 리더십 교육의 콘텐츠
제작과 재취업지원 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예정된
비대면 간담회와 교육 콘텐츠만도 다수 계획되어 있다.

Q. 비대면 교육 외에도 스튜디오 활용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매월 진행되는 사내방송 녹음에도 활용할 수 있고,
크로마키 스크린이 비치되어 있어 사내 유튜브 및 사보 촬영도
가능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조직별 필요, 용도에 따라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Q. 바로배움 스튜디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아직까지는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스튜디오 매뉴얼 및
시스템 안정화가 되면 바로넷을 통해 신청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혹시 그 전에 사용 계획이 있으신 팀 혹은 현장에서는
인사팀 교육파트로 문의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Q. 바로배움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팁이 있다면?

A. 고성능 영상장비를 사용해 촬영을 진행하는 만큼 영상, 음향,
조명 장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여기에 ZOOM이나 게더타운 등의 비대면 플랫폼의 사용법을
숙지하신다면 바로배움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의 효율화를 몸소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Q. 바로배움 스튜디오를 오픈한 후 소감이 있다면?

A. 바로배움 스튜디오 오픈을 위해 도움을 준, 총무팀과
자산관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직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공간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새 희망을 향해 오르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스포츠 클라이밍.
하지만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새해를 맞아 대우건설의 '젊은 피' 4인방이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원택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현장

신중찬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현장

이수연

외부환경디자인팀

진태후

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현장



안전성 높은 전신운동에 성취감은 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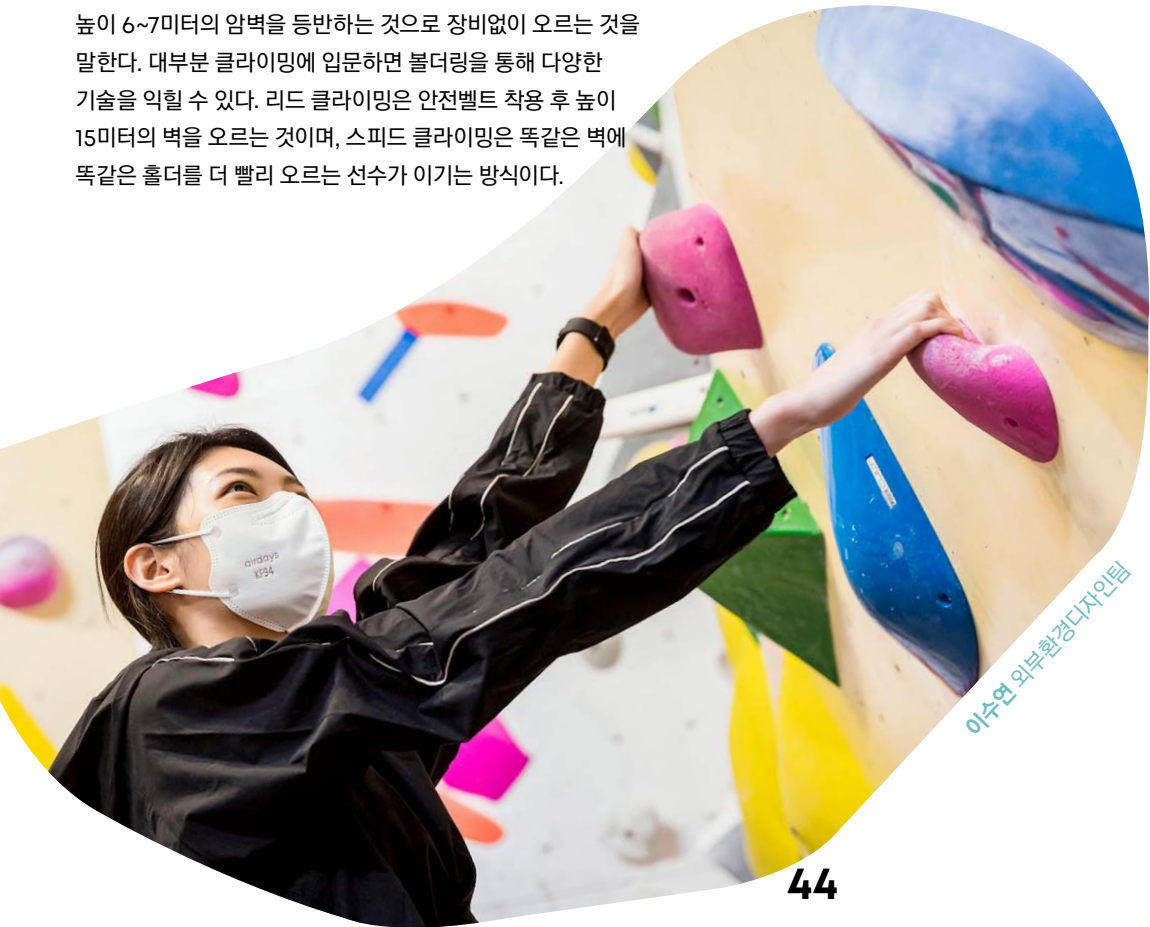
스포츠 클라이밍은 실제 자연 암벽을 타는 마운틴 클라이밍을 모티브로 해서 탄생했다. 1940년대 프랑스 전문 산악인들의 교육 훈련용으로 시작된 이후, 인공으로 만들어진 암벽 구조물을 손과 발을 사용하여 등반하는 레저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초창기 스포츠 클라이밍이 등장했을 때, 전통적인 자연 클라이밍을 즐기는 이들은 ‘가짜 클라이밍’이라고 알잡아 보는 시선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이 많은 이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암장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다. 클라이밍 도중에 실수를 하거나 떨어져도 매트 등의 안전장치가 있고, 홀드가 벽에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어서 자연 바위에 기구를 볼트로 박을 때처럼 흔들리거나 떨어질 위험도 없다. 무엇보다도 도시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클라이밍의 기술과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스포츠 클라이밍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활용하는 운동으로 운동의 효과가 좋다. 특정 자세의 반복과 더불어 등반하는 데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근육을 고루 활용할 수 있어, 근력과 근지구력·심폐 지구력과 같은 기초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연 암벽등반에 비해 안전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생활 체육으로의 가치가 높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암벽을 선택한다면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완등 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볼더링, 리드 클라이밍, 스피드 클라이밍으로 나뉜다. ‘클라이밍의 꽃’이라 불리는 볼더링은 높이 6~7미터의 암벽을 등반하는 것으로 장비없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클라이밍에 입문하면 볼더링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리드 클라이밍은 안전벨트 착용 후 높이 15미터의 벽을 오르는 것이며, 스피드 클라이밍은 똑같은 벽에 똑같은 홀더를 더 빨리 오르는 선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이수연 외부환경디자인팀



진태후 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현장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떨리고
긴장되서 어느 홀드를 잡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아래 있던 동기들이 박수쳐 주면서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는데
‘아, 함께 온 동료들이 있었지’하는 생각에
갑자기 힘이 솟던데요, 하하.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임원택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현장



신중찬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현장

함께 하는 액티비티 속에 쌓이는 동료애

이날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기 위해 클라이밍파크 한티점에 대우건설의 ‘젊은 피’ 4인방이 모였다.

외부환경디자인팀 이수연 사원, 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 진태후 사원,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임원택 사원,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신중찬 사원이 그들이다.

입사동기라 유독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하는 이들은 현장이 뽕뽕이 흩어져 있어 평소 얼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땀 흘리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돼서 좋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 관심있게 봐온 스포츠인데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여 좋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싶어도 혼자서는 암장에 가기 어려웠는데, 함께 오게 되니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어떤 운동이든 그렇지만 실내 클라이밍 역시 가벼운 몸풀기가 필수. 부상에 대비하여 팔, 다리 운동과 손목과 발목, 허리 등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준비운동을 한 후 본격적으로 클라이밍 체험이 시작되었다.

클라이밍의 기본 자세는 ‘삼지점’. 두 발을 각각 홀드에 달고 양손으로 홀드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손과 발에 흠뻑하게 하는 자세이다.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자세를 취해본다. 홀드 하나에 양손을 잡고 두 발을 벌려 팔과 다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자세이다. 홀드는 인공암벽의 손잡이로 색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옆에 붙어 있는 테이프 색상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는데 이날 갔던 클라이밍파크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노랑부터 검은색까지 색상별로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다.

이날 임원택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첫 체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노랑 난이도부터 도전해본다. 강사의 설명대로 시작 위치에서 삼지점 자세를 유지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을 번갈아 사용하며 루트를 찾아 나간다. 클라이밍 경력 10개월 차로 웬만한 선수급 못지않은 실력을 지닌 임원택 사원이 클라이밍 초보인 동기들을 격려하며 잡아야 할 홀드를 알려주는 등 친절히 설명해주기도 한다.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하지만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들이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we are challenger



동료들과 함께 느껴보는 성취감과 기대감

일단 쉬운 루트를 성공하고 나니 점점 자신감이 붙는다.
노랑 난이도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인 분홍 난이도에
도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맨손으로 인공암벽을 기어
오르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균형을 잃으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동 중 자세가 꼬이거나 흐트러지면 다음에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몰라 벽에 엉겨주춤 달라붙어 있기도 한다.

힘들게 등반해서 목표를 찍고 다시 무사히 내려오면
밑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처음 해본 도전,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가까운 동료들과 나누는 기쁨이란, 암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 본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매력일 터.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떨리고 긴장되서 어느 홀드를
잡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아래 있던
동기들이 박수쳐 주면서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는데
‘아, 함께 온 동료들이 있었지’하는 생각에 갑자기 힘이 솟더라고요,
하하.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애초부터 정해진 답이 없는
스포츠다. 규칙없이 흩어진 홀드를 보고 어느 길을 가는 게
나에게 맞는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종목이다. 이날
동료들과 함께 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꿈과 기대를 갖고 위를
향해 올라간 이들. 이들의 새해가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아
나가며 꿈을 정복해나가는 희망에의 여정이길 기대해본다.

DAEWOO E&C MAGAZINE 2022 1 + 2



sports climbing item

확보기

확보기는 로프와 벨트를
연결하는 도구로, 리드/스피드
종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로프와의 마찰을
통해 등반자의 추락을 방지하고
하강할 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암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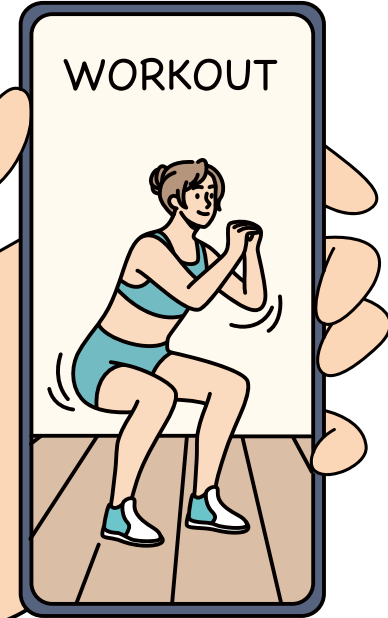
암벽화의 뒤꿈치와 앞꿈치는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어
발을 보호하고 벽면과 홀드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준다.
안전한 등반을 위해서는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발에 딱 맞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클라이밍 테이프

손가락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며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테이프를 감을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위해 손가락 마디를
피해서 감아야 한다.

초크가루와 초크통

손에 땀이 나면 홀드와의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과 홀드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해 초크가루를 사용한다.
땀을 흡수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마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작심삼일 막는 특별한 운동법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처음의 열정은 사그라지고, 그 자리엔 지키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만 남는다.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과 후회를 반복하는 이들을 위해, 작심삼일을 막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한다.

계획 성공을 위해, 작심하고 또 작심하라!

정성껏 세운 운동 계획이 기껏 '작심삼일 운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실패할 때마다 작심하고 또 작심하면 된다. 계획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마음을 다잡고 또 잡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운동이 일상 속 루틴이 되어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동기부여, 즉 운동하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 계속 하다보면 지치고 힘이 들기 마련인데, 목적마저 뚜렷하지 않다면 이 운동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의문이 들면서 운동을 점점 포기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때문에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춰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달성 가능한 단계와 목표를 포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키기 쉬운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체력수준이 향상되면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면 된다. 예를 들어 '올 가을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따라 1월에는 5km, 3월에는 10km, 6월에는 하프코스... 이런식으로 단기 목표를 세워 그에 따른 매일의 프로그램을 짜며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매일매일 운동일지를 써보자. 운동하는 나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다. '오늘은 10km를 달렸다'는 운동일지를 매일 SNS에 올리면서 주변인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그것이 또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운동일지를 쓰면서 자신의 성과를 매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함께 하는 동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각종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함께 하는 운동메이트를 만들면 서로 격려하며 할 수 있고 다소 강제적이라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게다가 단체 스포츠는 운동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어 더욱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일종의 운동 '자극제'를 활용해보자.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운동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이용하거나, 매일 나의 운동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운동화나 운동복 등 운동용품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불러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쌓인 운동습관이 3개월 이상 이어가면 운동에 적응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하면 운동을 안하면 안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즉 사람의 뇌가 운동에 적응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심리학적으로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지 참고 6개월을 꾸준히 하면 우리몸은 운동에 적응한다고 말한다. 흔히 운동 마니아들이 '운동을 안하면 몸이 찢찢하다'고 하는 것 역시 뇌가 운동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도 운동을 안하면 몸이 찢찢해지는 운동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보자. '작심삼일'이 '작심육개월'이 될 때까지, 올해 우리의 건강한 운동 라이프는 꼭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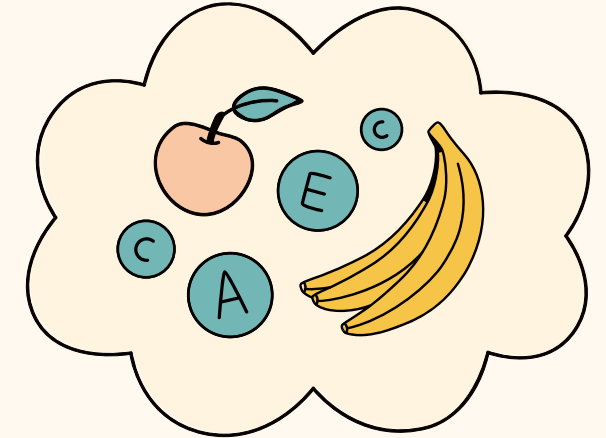
운동 초보를 위한

tip



충분한 수분 유지

건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하루 종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 후에도 바로 수분을 공급해주면 빠른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균형잡힌 영양 섭취

탄수화물은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뿐 아니라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방 역시 근육 연료를 보존하여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다.



내 몸에 귀 기울이기

운동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을 계속 할 경우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거나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워밍업과 릴렉스

운동 전 워밍업은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후 갖는 릴렉스 타임 역시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복원하고 근육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이제 대우건설은 SNS로 통한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대우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회사의 온라인 채널도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2011년 정대우의 탄생과 함께 오픈한 유서 깊은 페이스북 채널, '정대우씨 이야기'부터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사보 블로그까지. 온라인을 통해 회사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채널들을 소개한다.

대우건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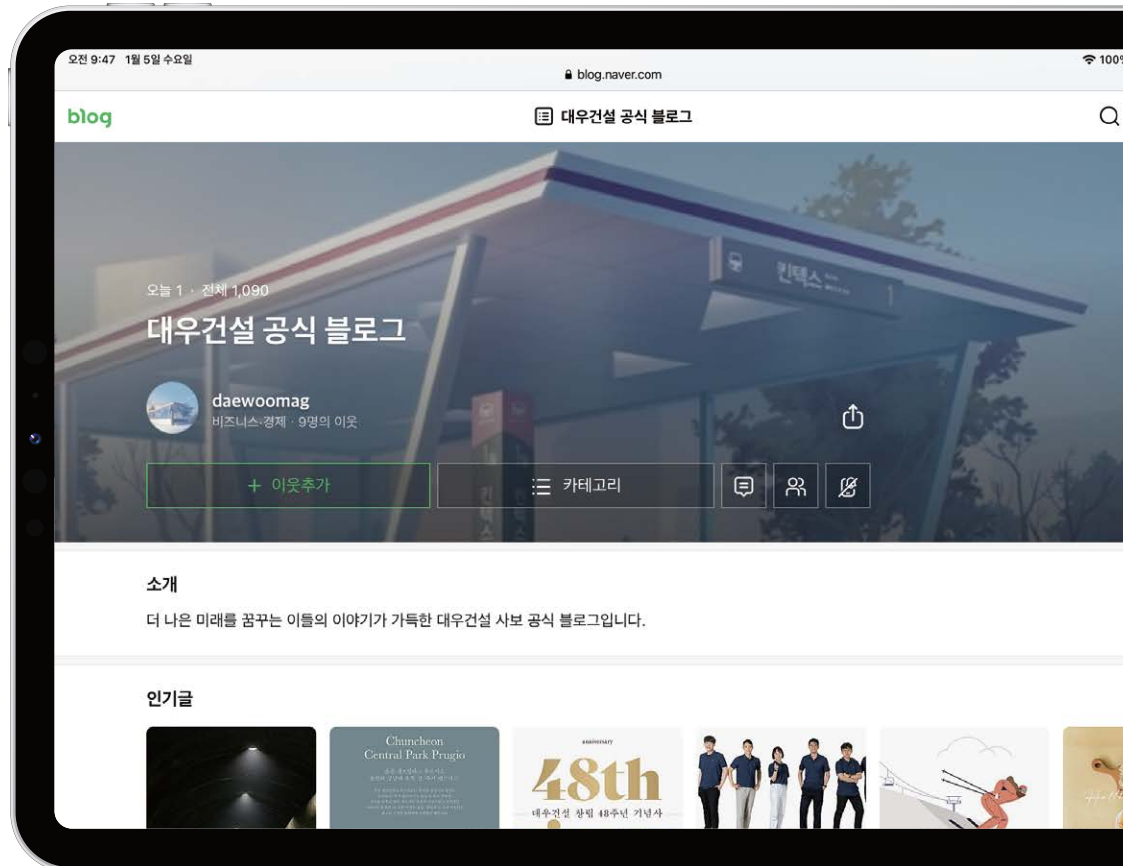
사보 '대우건설인'에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들이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그것인데 사보의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각 채널 성격에 맞는 형태로 콘텐츠를 재생산하여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우건설인'에서는 사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보에 담길 콘텐츠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고 싶지 않다면 팔로잉에 알람 설정 꾸욱~



〈대우건설인〉YOUTUBE
youtube.com/c/
대우건설인



〈대우건설인〉INSTAGRAM
@daewoo_e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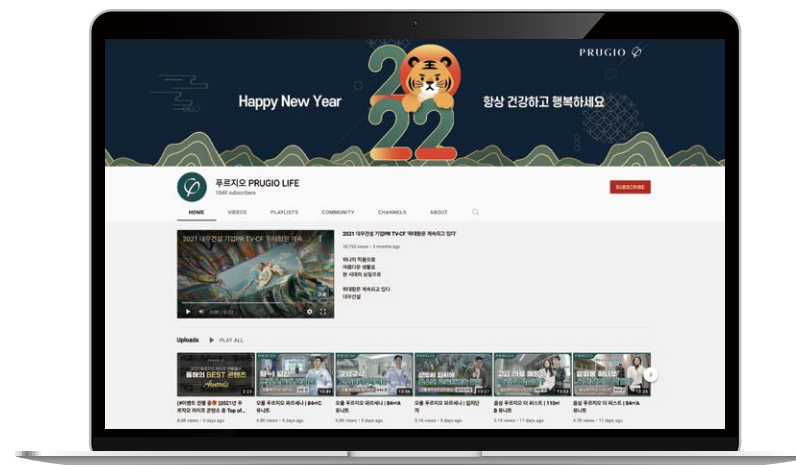
〈대우건설인〉NAVER BLOG
blog.naver.com/
daewoomag

푸르지오 라이프

업계 최초의 정기발행 유튜브 영상 매거진인 '푸르지오 라이프'는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인 'The Natural Nobility'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브랜드 채널이다. 푸르지오의 분양정보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 법률, 금융 정보는 물론, 나아가 인테리어, 쿠킹 등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및 참여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중인 현장의 모습, 입주 예정 단지 영상 콘텐츠 등의 제작을 요청해 오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브랜드 채널로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푸르지오 라이프〉YOUTUBE
youtube.com/
PRUGIO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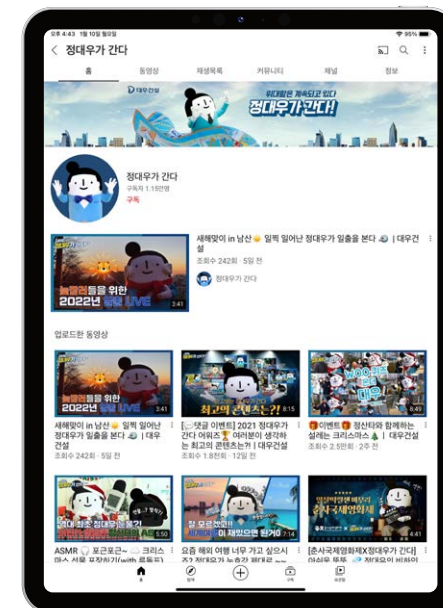


정대우가 간다

'정대우가 간다'는 건설업계 최초로 캐릭터를 활용한 독립적인 채널로 회사의 주요 소식은 물론 흥미로운 트렌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2021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보 콘텐츠, ESG 관련 친환경 프로젝트 등을 선보였으며, 춘사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해 이제 진정한 인플루언서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쏫츠 등 최신 트렌드를 담은 콘텐츠와 더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대우가 간다〉YOUTUBE
youtube.com/
jungdaewoadventure



'푸르지오 라이프' 인스타그램 채널은 다채로운 푸르지오 단지 전경과 인테리어는 물론 푸르지오에 입주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통해 푸르지오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인 '본연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푸르지오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입주민들의 일상을 공식 계정에 리그램하여 콘텐츠로 활용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푸르지오에 입주 중인 고객과의 소통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푸르지오 라이프〉INSTAGRAM
@prugio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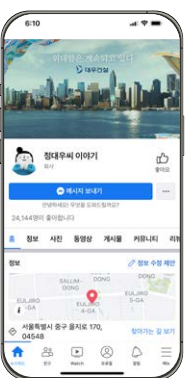


정대우씨 이야기

'정대우씨 이야기'는 정대우의 역사와 함께 한 회사의 가장 유서 깊은 채널로, 올해로 오픈한 지 12년차 장수 채널이다. 건설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회사 홍보에 앞장서 온 '정대우씨 이야기'는 회사의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하며, 어려운 건설 기술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2022년 한해도 다른 채널과의 연계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대우씨 이야기〉FACEBOOK
facebook.com/
JungdaewooStory



임인년 壬寅年 새해를 맞이하는 대우인들의 자세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올 한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
이들의 새해 첫날은 아주 특별하다. 대우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해를 맞았을까.
SNS를 통해 들여다본 대우인들의 희망찬 새해 첫 시작의 풍경을 들여다본다.



❤️ 💬 📌
박웅 과장 | 글로벌지원팀 #새해 는 출산휴가 2주부터 시작.
잘 지내보자! 지환이 태어난지 한살. 벌써 #두살 ㅋㅋ



❤️ 💬 📌
전대원 차장 | 경산지식산업단지2단계현장
2022년! #일출 #시작 #임인년



❤️ 💬 📌
박영근 대리 | 청주테크노폴리스A6BL공동주택현장
꼬실때는 하나만 사면 됐는데.. #2022 부터는 2개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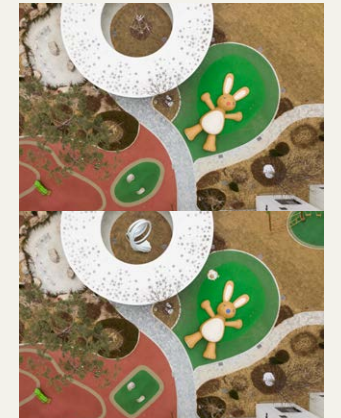


❤️ 💬 📌
이수호 과장 | 서부지역설비2팀
#가족 #새해복 #happynewyear 건강합시다♡

대우건설인 11+12월호 이벤트 당선작



- 1 스마트혁신팀 안민규 과장
- 2 정보보호팀 정용석 과장
- 3 수주심의2팀 박구현 과장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

엽서에 실린 틀린 그림 찾기에
참여해주세요. 두 사진에서 다른 곳을
5군데 찾아서 사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엽서에 있는 틀린 그림 5군데를 찾아
표시하신 후 우편으로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
2021.1.17~2.18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대우건설인〉 11+12월호 독자의견 당첨

1

김민성 대리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현장)

유난히 춥고 어두웠던 출근길, 사무실에 앉아 손발을 녹이던 중 오랜만에 열어본 사보의 첫 칼럼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천천히 살아가는 우리들, 잊혀진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뒷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로만 대하던 직원들도 각자의 세상에서는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듯이 동료들의 따뜻함을 불씨삼아, 저도 매일의 순간에 불을 지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지윤 (김병용 차장-토목기술팀)

special day를 통해 소개된 ‘마크로비오틱’. 식구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주려는 마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칼럼을 읽고 바로 집에 있는 재료로 최대한 ‘마크로비오틱’에 가깝게 ‘부르스케타’와 ‘후무스’, ‘콤포샐러드’를 해 먹었어요. 저 같은 독자를 위해 레시피도 함께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김병조 부장 (울산 북항 터미널 OIL 1단계 건설공사 PJ 현장)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타워크레인의 전복 사고 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건설인의 가족으로서 항상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번 기술 칼럼인 ‘실시간 동바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2

3

고윤미 (신창호 과장-나이지리아 NLNG T7 OFFSHORE PJ 밀라노현장)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따스한 정이 그리운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도 점점 무뎌지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지냈는데 ‘잃어버린 감성을 회복하자’는 한 줄의 문장이 연애시절 주고받았던 편지의 설렘과 행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멀리서 근무 중인 남편한테 손편지를 써봐야겠어요~♡

이민정 (손창원 대리-나이지리아 GBARAN INFILL PJ 현장)

our scene, GTX-A2공구현장이 반가웠습니다. 현장이 저희 집 근처라 오가며 제가 볼 수 없는 땅속 세상이 궁금했는데, 땅 아래의 생생한 건설현장을 실감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대우건설, 응원합니다!!

왕영진 (주택건축전기팀 정한준 대리)

친환경이 오히려 반환경이 된다는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텀블러와 에코백의 환경손익분기점을 보고 친환경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반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우건설인〉 덕분에 친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배운 것 같아 뿌듯합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쿼지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 선물〉

- 1등: 발뮤다 토스터 (1명)
- 2등: 기프티콘 3만원 상당 (2명)
- 3등: 스타벅스 음료권 1만원 상당 (5명)



발뮤다 토스터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02-2288-3297

‘대우센터빌딩’의
자료·사진을 찾습니다!

‘대우센터빌딩’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우센터빌딩’과 관련한 각종 자료나 사진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채워지는 더 풍성한 사료는, 대우건설의 역사가 더욱 탄탄하게 오랫동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씨앗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사보편집실에서는 대우건설의 지난 역사자료들을 수집하는 연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도움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